## "생계비 반영" vs "경영난 극심" ··· 간극 큰 '최저임금 인상'

중기·소상공인 97.8% 인하 또는 동결 응답 "인원 감축·축소 불가피" 노동자 측 "치솟는 물가에 생활 힘들어…최저임금 반드시 인상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영업 자들이 그 결과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값 부담은 여전한데 최근 전기료 인상까지 겹치는 등 고정비용 증가가 불가 피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절반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기준 9620원인 최저임금이 잇따른 물 가상승률 상승 등을 고려해 1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주장도 나온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33.3% 였고 '인상해 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계획(복수응답)에 대해선 가장 많은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44.5%는 기존 인력을 감원

하겠다고 답했고, 42.3%는 기존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올해  $1\sim4$ 월 월평 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지난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4% 늘었다. 반면 올해  $1\sim4$ 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월평균 인건비에 비해 10만원가량 적었다.

나아가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 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곳 중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신규 채용을 축소(60.8%)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7.8%)하겠다고 답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

상이 되면 지역 상인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업종별 구분 적용도 시행돼야 한다"고 말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은 불가피하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200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 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천 원 운동본부'가 개최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 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 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 임금을 시급 1만2208원·월급 255만2000원으로 계 초해다

이는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월 421만7000원) 와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 등을 고려한 결과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 B씨는 "물가 상승 폭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은 반드시 인상되야 한다"고 말 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 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 (1.5%↑)→작년 9160원(5.05%↑)→올해 9620 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

한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사이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브라질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생긴다

미국이어 2번째…aT감사장전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브라질 상파울 루시 '김치의 날' 제정이 시의회를 통과하고 지난 7 일 관보에 게재됐다고 8일 밝혔다.

김치의 날 법안은 일본계 의원 아울렐리오 노무라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했으며, 발의문에는 김치의 역사와 건강식품으로서 우수성,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임을 담겨있다.

aT는 지난 2020년 '김치의 날' (11월 22일)이 국 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세계전역에 '김치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왔다. 그 결과 미국 워싱턴D.C를 포함해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뉴욕주에서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번 상파울루시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 확정 으로 브라질은 김치의 날을 제정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김춘진 aT 사장은 "지구 반대편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도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불모지로 여겨지던 남미시장에서 김치가 한국 대표 음식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이번 '김치의 날' 제정을 계기로 브라질을 거점으로 남미 전체로의 한국의 식문화 확산은 물론 김치와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T는 노무라 의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aT는 상파울루시 '김치의 날' 제정 기념으로 올하반기 '김치 레시피 경진대회', '김치 홍보·판촉전' 등 다양한 K-푸드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석기자 mskim@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홍수기 전 물재해 예방 나서

댐 운영계획 공유·시설물 점검 등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백인 노)는 8일 K-water 주암댐지사에서 '2023년 홍 수기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 회의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 댐, 보 등 수자원 시설물 관리 주체가 참석해, 홍수기 댐 운영계획 을 공유하고 댐 상류와 하류하천 제약사항 조사 결과, 시설물 점검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댐 방류의사결정 시스템 시연과 댐 방류 시 하류하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적 댐 운영 시스템이 적기 운영될수 있도록 점검했다.

백인노 본부장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양극화로 전 지구가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영·섬유



역도 극한 홍수에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비와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로 인한

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진공 호남연구원, 패밀리기업 간담회…지속 성장 견인

신규 지정 기업 지정서 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원장 조수정)은 8일 올해 신규 지정된 패밀리기업 10개사를 포함한 총 1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기업 제도는 중진공 연수원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인재육성에 선도적이고 직원 교육 투자 에 적극적인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다양한 연수 혜택을 지원해 중기 재직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패밀리기업은 1년간 최대 5년까지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진단기반연수 참여기회 우선제공 ▲일반집합연수 5회 무료 ▲CEO 명품아카데미 1회 ▲맞춤연수 1회 ▲이러닝연수 20% 할인 등 혜택이 지원된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로 지정된 패밀리기업 10 개사의 지정서 수여식과 함께 중기 사내교육 애 로사항 청취와 연수사업 정책 제언, 지역산업 특 화 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됐던 사회공헌 ESG패밀리의 활 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수정 원장은 "인재양성은 기업 혁신성장의 시작이다"며 "다양한 연수 개발과 기업 소통을 통 해 패밀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때교체!"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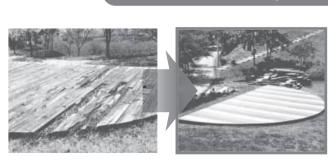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